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햇볕이 쨍쨍

제목 : 산책

오늘은 산에 갔다. 1시 쯤부터 갔다. 가는데
20분이 걸렸다고 왜냐하면, 김밥을 사기 위해서이다.
처음부터 나무가 많았다. 좋은 공기를 마셨다.
정말 상쾌했다. 어려운일이, 좋은일로 바뀌는
것 같았다. 처음에 너무 뛰어서 그런지 중간에 힘
들었다. 그래도 힘내서 걸어갔다. 가다가 김밥도
먹고,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정말 좋았다. 동생은
앞장 섰다. 점점 갈수록 높아졌다. 산에서 땅
을 내려다보니 집들이 정말 많았다. 걸으면 길
을수록 힘들었다. 아빠가 가자고 하셨다. 나는 조
금 아쉬웠다. 그치만 내려오는 길에 꽃도 더
많이 봤다. 정말 아름다웠다. 벌써 4시였다.
'산아 다음에 또 보자!~'